

시진핑發 사법개혁 칼바람...中共산당 일당 독재 강화

사법 독립·당정기관 권력 통제 조치 등 무더기 발표

민주주의 기반한 법적 통치보다 통제 강화 비판 제기

‘헌법통치’를 천명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사법기관의 독립과 당정기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조치들을 무더기로 쏟아내며 중국 사법제에 대한 대전환을 예고했다.

29일 중국 관영매체들을 통해 일제히 발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정문 전문’에 따르면 시진핑 지도부가 이번 4중전회에서 결정한 사법개혁의 폭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번 발표에 따라 헌법에서부터 형법, 민법, 행정법, 군법 등 거의 모든 주요법률

이 개혁의 수술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체제가 ‘법치중국 건설’을 모토로 제시한 전체 사법개혁의 청사진은 크게 사법독립과 당정기관에 대한 권력 통제, 전국민에 대한 법률 의식 제고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주목을 받는 사법독립 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정간부들의 ‘사법개입’ 기록·통보 제도 도입 ▲최고인민법원의 순회법정 설치 ▲행정단위를 초월하는 인민법원·인민검찰원 설치 검토 ▲법원·검찰원의 사법행정사무관리권과 재판권·검

찰권의 분리 ▲인민배심원제도 개선 및 강화 조치 등이 발표됐다.

신경보(新京報)는 당정간부들의 ‘사법개입’ 기록·통보 제도와 관련,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도간부들의 사법개입 행동은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판사와 검사가 재판 개입 행위를 기록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제도를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대학 소송제도·사법개혁연구중심 천웨이둥(陳衛東) 주임은 새로 도입되는 순회법정 제도는 “지방정부들의 보호주의를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과 검사가 기층조직에서 근무를 시작해 경력을 쌓고 나서 삼급조직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과 당정기관의 공직변호사 채용 제도 도입 등도 사법독립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치로 해석된다.

당정기관에 대한 권력제한 및 감시 조치에는 ▲중대결정에 대한 법률심사제 및 중신책임제 도입 ▲지방정부의 입권 권한 제한 ▲행정기관의 초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권한리스트’ 작성 ▲검찰기관의 공익소송 제기 등의 조치도 도입된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 취임 이래 “권력은 세장 안에 넣어야 한다”는 ‘정책개혁 구호’를 내걸고 줄곧 중앙과 지방의 당내 권력자들에 대해 각종 견제장치를 마련해왔다고 주장해온 점으로 미뤄볼 때 이런 조치들은 시 주석의 아이디어들이 직접적으로 반영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산당 지도부는 또 전 국민의 법치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헌법일 제정 ▲공직자의 헌법준수 서약 의무화 ▲중중고교에 ‘법치지식’ 교육과정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발표문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헌법심사권 및 헌법해석권을 부여하는 등 입법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신체·재산·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무죄추정과 불법증거 배제 원칙에 따른 재판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공산당 지도부는 “홍콩·대만문제에 대한 외세 간섭을 배제한다”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도 일부 제시했다.

시진핑 체제가 집권 3년차를 앞둔 시점에서 기존의 법률체계 전반을 뒤엎는 광범한 사법개혁 조치를 한꺼번에 쏟아낸 것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되는 개혁조치들을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반드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시 주석은 이번 ‘4중전회’를 지난해 말 열린 3중전회의 ‘자매편’에 비유하며 “전면적 심화개혁을 위해서는 법치보장이 필요하고 ‘의법치국’(依法治国·법에 따른 통치)을 위해서는 (전면적) 심화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지도부의 이런 전면적인 사법제도 개혁은 공산당 일당독재를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법적 통치 강화보다는 오히려 법적 통제 강화 쪽에 기울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공산당 지도부는 이번 4중전회를 통해 제도조정, 정책조정과 관련된 모든 입법활동은 반드시 당중앙위원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스스로 당의 입법권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도 함께 발표했

美 무인우주화물선 발사 6초만에 공중 폭발...사상자는 없어

우주정거장 보급품 2톤 싣고 버지니아주 월름스기지 출발 우주화물 민간 수송 도마 위에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향하던 무인 우주화물선이 28일(현지시간) 오후 6시22분께 미국 버지니아주 월름스섬의 기지에서 발사된 지 6초 만에 폭발했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나사가 러시아와 계약을 체결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인과 물품을 공급해온 우주왕복선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회사에 공급업무를 위탁한 이후 처음 발생한 폭발 사고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그너스’로 불리는 우주화물선은 발사 직후 심하게 요동치더니 발사대 위에 수직으로 떨어졌고 이후 공중에는 거대한 화염구가 형성됐다.

현재까지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없으며 피해는 해당 시설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나사의 발사통제실은 이번 사고를 “이례적인 참사”로 묘사하면서 “현재로서는 손해가 발사시설과 로켓 자체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고 화물선에는 매우 휘발성 높은 연료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CNN은 나사의 발사 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이 화물선에 ‘비밀 정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쓰일 물품을 싣은 무인 우주화물선 시그너스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월름스섬 기지에서 발사된 지 6초 만에 폭발(왼쪽 위),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있다. /연합뉴스

가 탑재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오비털 사이언스는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이날 폭발한 우주화물선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용할 식량과 실험장비 등 물품 267kg을 싣고 있었다.

롭 나비어스 나사 대변인은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승무원들이 긴급하게 필

요 하는 물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우주화물선은 27일 밤 발사될 계획이었으나 발사 직전 선박이 미리 설정해 둔 항행금지구역에 들어오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폭발 사고에 따라 나사의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수송 방침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우주왕복선 운영을 중단한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화물 수송을 러시아 등 다른 나라 우주선에 의존해 오다 상업케도운수서비스(COTS) 계획을 마련해 자국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나사는 민간 우주항공사인 ‘오비털 사이언스 코퍼레이션’ 및 ‘스페이스 X’와 국제우주정거장 물품 공급 계약을 맺

고 있다. 이 중 버지니아주 달레스에 위치한 오비털 사이언스는 19억 달러를 받고 8차례에 걸쳐 우주정거장에 물품 4만4000파운드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오비털 사이언스의 우주화물선 ‘시그너스’는 이날을 포함해 모두 네차례 발사됐으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N 北인권 결의안 공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조치 구체적 이름은 포함 안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공개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연합(EU)과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A4 용지 8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draft proposal)을 공개했다.

EU 등은 결의안에서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면서 안보리가 COI의 적절한 권고와 결론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항에는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과 COI가 반(反)인도 범죄라고 한 행동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사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안보리가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나 이 조항에 감정은 등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총회 3위원회 회기(다음달 27일까지)가 끝나기 직전인 다음 달 말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올라가서 채택 절차를 밟게 된다. /연합뉴스

특별이벤트

참 좋은 순창 내들이 아름다운 순창에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건강에 좋은 농특산물도 구입해 보세요. 축제장에 영수증(입장권을) 가져오시면 행운의 기회가~

하나! | One!
빨간옷을 입고 오세요 (막걸리, 상품구매시 할인혜택)

둘!! | Two!!
축제장에서 상품 응모권 배부 (입장권 영수증 지참시) 매일 매일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순창장류축제 연예인 공연 일정

구분	10월 30일/목	10월 31일/금	11월 01일/토	11월 02일/일
공연연예인	김성환, 김국환, 구니은, 김단아, 서정우, 서지오, 이용, 지원이, 현숙, 현진우, 씨니힐	남진, 박규운, 서주경, 강문경	구창모, 이진관, 진사문, 휴먼스	김경호, 라이브 UP 콘서트

제9회 순창장류축제

2014. 10. 30(목)~11. 2(일) 4일간 순창전통고추장인속마을, 강천산군립공원

주최/주관: 순창군/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제9회 순창장류축제 일정표

10. 30(목)				10. 31(금)			
09:00~12:00	제26회 순창 민속놀이 경연대회	부무대	10:00~12:00	편만-그리와 몸짓의 배를 마당극	주무대		
10:00~11:00	순창고추장 어린이 생생경주	주무대	12:00~13:00	2014인본 순창고추장 떡볶이만들기	부무대		
12:00~13:00	2014인본 순창고추장 비빔밥만들기	부무대	13:00~	친류고를 청소년 어울마당 (13:00~16:00)	주무대		
15:00~17:00	푸른음악회 에미아트	주무대	14:00~15:00	필름GOOD판 재능기부마당	부무대		
17:00~18:00	식전공연 및 개막식	주무대	14:00~	제10회 장류 국제모임	장류연구소		
18:00~20:00	개막식 및 불꽃놀이 (전주MBC TV 개막축하공연)	주무대	18:00~20:00	트루트 박스	주무대		
11. 01(토)				11. 02(일)			
10:00~	어린이 장류그림 그리기대회	용기체험관	09:00~13:00	제14회 순창군 읍면 농악경연대회	주무대		
10:00~11:00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공연	주무대	12:00~13:00	청정원과 함께하는 웰빙비빔밥 만들기	부무대		
12:00~13:00	300m 장이찌감밥 만들기	부무대	13:00~14:00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축제장		
12:00~	제1회 순창 국제 기능수 학술대회	강정수연구관	13:00~	순창고추장 전국어린이 떡볶이요리왕 선발대회	경연장		
13:00~	제11회 순창고추장 요리경연 전국대회	경연장	14:00~16:00	제15회 순창국악공연	주무대		
14:00~15:00	2014 순창 웰빙길치 나눔행사	주무대	14:00~17:00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용기체험관		
15:30~17:30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부무대	15:00~17:00	화끈한 '콘서트'	부무대		
15:00~16:00	클니우말마호니 오케스트라 공연 리하설	주무대	15:00~16:00	군민과 관광객 어울마당 대동극	참여행사		
16:00~18:00	클니우말마호니 오케스트라 공연	주무대	16:00~18:00	패막시 리하설	주무대		
18:00~20:00	청정원과 함께하는 7080 콘서트	주무대	18:00~20:00	패막시 (김경호 라이브 UP 콘서트)	주무대		

*본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